

사 진 자 료



영친왕비 쌍가락지, 장도노리개와 포장용구
雙持環·粧刀佩飾·裝身具箱子·袂袱

20세기 초
국가민속문화재 제265호

영친왕비의 쌍가락지와 장도노리개 및 이들을 포장하는 보자기와 상자로, 쌍가락지와 장도노리개는 하나씩 각각 두꺼운 색지로 감싸 모양을 잡고, 이를 끈 달린 비단 겹보자기로 싸고 끈으로 돌려 묶어 상자에 넣었다. 보자기의 겹감은 만자문卍字紋 바탕에 화문花紋이 있는 연두색 또는 황색단, 안감은 홍색 만자문단으로 한 겹보자기 한쪽 모서리 끝에 홍색 또는 자적색 단으로 끈을 달았으며 상자는 얇은 나무판을 붙여 만든 것으로, 바탕은 진분홍색에 피리와 연꽃이 혼합된 운보문단으로 감싸고 연두색으로 테를 둘렀다.



국기복색소선·법복사절복색과 첩갑

조선朝鮮, 19세기 말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헌종憲宗(재위 1834~1849)의 후궁인 경빈慶嬪 김씨(1831~1907)가 기일에 입는 복식에 대한 것을 궁체로 쓴 두 권의 책과 이를 담는 데 사용한 첩갑이다. 첩 형태로 제작된 두 책은 하나의 첩갑帖匣에 넣어서 보관하였다. 첩갑은 오색으로 꽃무늬를 넣어 짙은 오색비단을 사용해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네 폭 봉황문보자기 四幅鳳凰紋引紋袱

조선朝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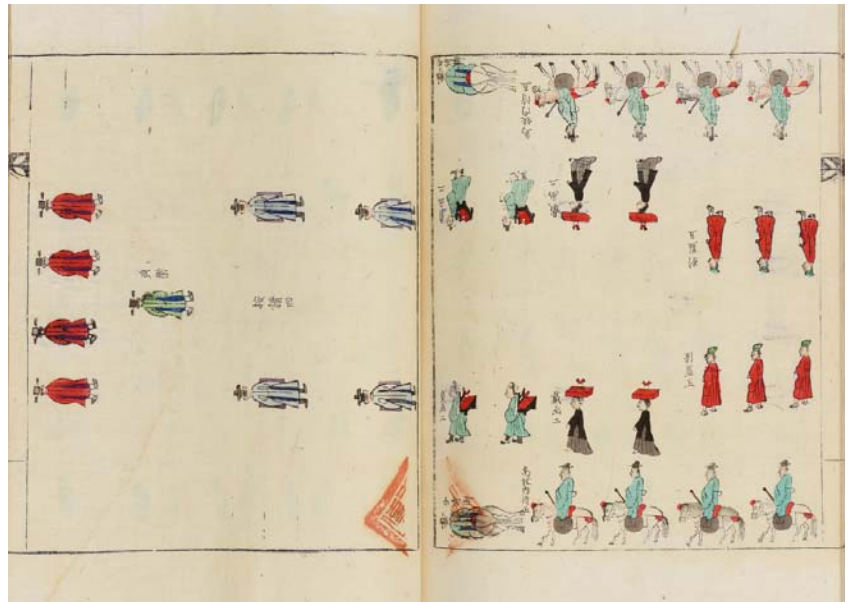
소색素色の 마직물 네 폭으로 구성된 홀보자기로, 보자기 위에 다양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어 인문보자기 [引紋袱]라고도 한다. 보자기의 세 모서리에 끈이 달려 있고, 나머지 한 모서리에는 끈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중앙에는 연주문(連珠文)에 둘러싸인 봉황 한 쌍을 마주보게 그려 넣었다. 봉황 주변에는 장수를 바라는 원수문(圓壽紋), 모란과 접시꽃 등의 화문花紋, 굴·복숭아·불수감·석류 등의 과실문(果實紋)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이러한 문양은 장수와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길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국혼정례國婚定例』와 각종 가례도감의례에 인문보자기가 왕실 가례 때 쓰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가례와 같은 경사스런 행사 때 쓰였던 보자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명안공주 세 폭 운보문 겹보자기
明安公主三幅雲寶紋袂袱

조선朝鮮, 17세기
보물 제1220호
오죽헌시립박물관

현종顯宗(재위 1659~1674)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1667~1687)가 1681년에 오태주(吳泰周, 1668~1716)와 혼인할 때 혼례용품을 싸는 용도로 사용하였던 보자기이다. 세 폭 겹보자기이며 겉감은 흑색 운보문단(雲寶紋緞), 안감은 무늬가 없는 연청색 비단이다.



순종순정효황후가례도감의궤

純宗純貞孝皇后嘉禮都監儀軌

대한제국大韓帝國, 1907년

보물 제1901-3호

1906년 순종純宗(1874~1926)과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1894~1966)의 혼례에 관한 내용으로 소요재정, 투입 인원, 도식, 반차도 등을 기록한 의궤이다. 「삼방의궤三房儀軌」의 ‘도식(圖式)’을 살펴보면 금책(金冊)의 경우, 홍운문한단(紅雲紋漢緞) 네 끝에 금전지金箋紙를 갖춘 핫보자기로 싸고 끈으로 묶은 뒤, 주홍칠바탕에 쌍반룡문(雙盤龍文)이 그려진 내·외궤에 담았다. 또한, 반차도에 붉은색 직물로 포장한 혼례품을 운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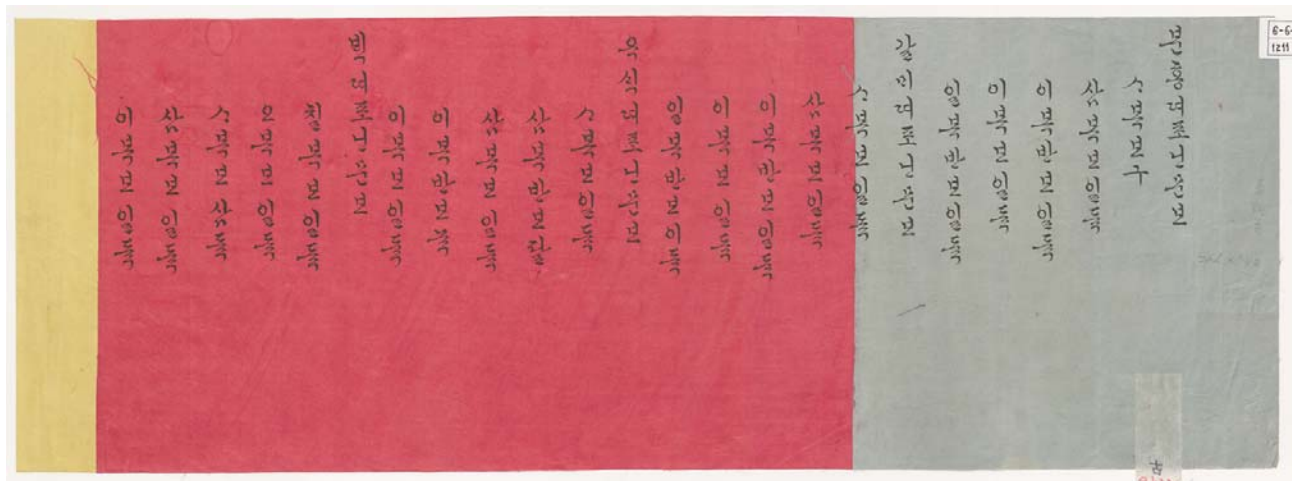


두 폭 은시접보자기

二幅銀匙櫟楸

조선朝鮮

방형(方形)의 보라색 명주 겹감과 청색 무명 안감으로 된 겹보자기이다. 유록색(柳綠色) 끈이 보자기의 겹감 중앙에 달려 있으며, 네 귀를 여민 다음 끈을 마주 묶어서 싸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은시접삼좌’라 쓴 종이가 끈에 묶여 있는데, ‘시접’은 수저를 담아놓는 그릇인 시접(匙櫟)을 말하는 것으로, 이 보자가 은으로 만든 시접 세 벌을 쌀 때 사용하던 보자기임을 알 수 있다.



인문보발기

引文袱件記

조선朝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궁중의 필요에 따라 제작되어야 할 보자기 목록을 적은 것으로, 별도의 명칭이나 언제 사용된 것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분홍저포, 갈매저포, 옥색저포, 백저포를 감으로 하는 인문보자 기[引紋袱] 233건의 크기별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다양한 길상문吉祥紋들이 그려진 인문보자기는 『국혼정례國婚定例』와 각종 가례도감의궤에 왕실 가례 때 쓰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혼례와 같은 경사스런 행사 때 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많은 양의 보자기들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조비 정성왕후 왕비 책봉 옥책과 봉과물품
英祖妃貞聖王后 王妃冊封玉 冊·封裹物品

조선朝鮮, 1726년

1726년(영조 2) 10월에 왕세제빈(王世弟嬪)이었던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를 왕비로 책봉하면서 제작한 옥책과 봉과물품이다. 정성왕후는 달성부원군(達城府院君) 서종제(徐宗悌)의 딸로, 1704년(숙종 30)에 연잉군과 결혼하여 달성군부인으로 봉해졌고, 1721년(경종 1)에 연잉군이 세제(世弟)로 책봉되자 세제빈에 봉해졌다가 1724년에 영조가 왕위에 즉위하자 왕비가 되었다. 어책을 봉과할 때에는 어책 판 사이의 마찰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판 보자기(격유보, 襦褙) 여러 개와 어책갑, 내함과 외례를 각각 싸는 보자기, 그리고 포장된 어책을 담는 함 등이 사용되었다.



영조비 정순왕후 왕비 책봉 금보와 봉과물품
英祖妃貞純王后 王妃冊封金寶·封裹物品

1759년(영조 35)에 영조비 정순왕후貞純王后(1745~1805)를 왕비로 책봉한 후 만든 어보, 그리고 어보를 쓴 보자기와 어보를 넣은 함, 그 함을 쓴 보자기 등으로 구성된 봉과물품이다. 정순왕후는 조선 제21대 왕 영조英祖(재위 1724~1776)의 계비(繼妃)로, 원비(元妃) 정성왕후(貞聖王后, 1692~1757)가 승하한지 2년 후인 1759년(영조 35)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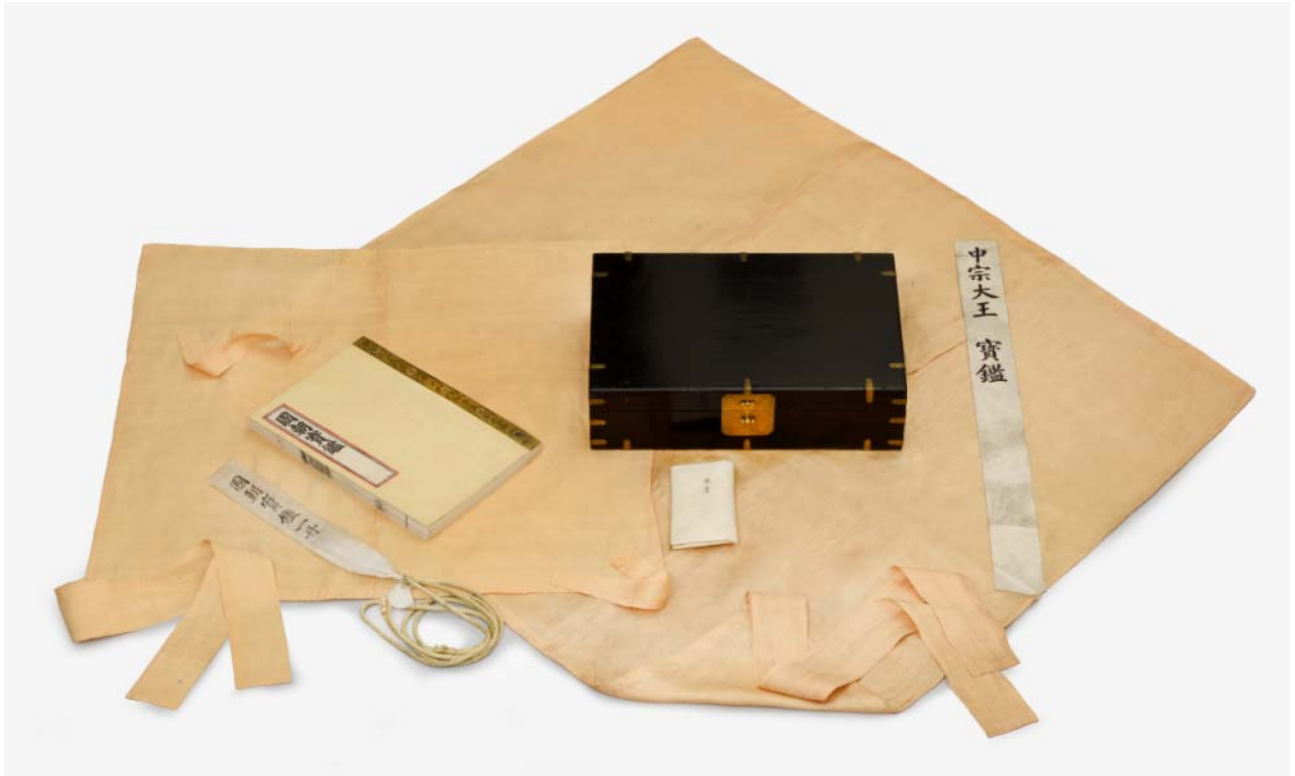


헌종비 효현왕후 왕비책봉 교명과 봉과물품

憲宗妃孝顯王后王妃冊封敕命·封裹物品

조선朝鮮, 1837년

1837년(헌종 3)에 헌종비 효현왕후孝顯王后(1828~1843)를 왕비에 책봉할 때 내린 교명敕命과 봉과물품이다. 효현왕후는 1837년에 10세의 나이로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이 때 왕비 책봉을 임명하는 금보(金寶) 옥책(玉冊)과 교명이 올려졌다. 교명을 봉과할 때는 교명을 쌀 보자기와 끈, 빈 공간을 채울 솜과 충해(蟲害) 방지를 위한 의향(衣香) 등이 사용되었다.



국조보감과 봉과물품 國朝寶鑑·封裹物品

조선朝鮮

『국조보감』과 이를 종묘宗廟에 모실 때 사용한 보자기, 상자, 끈과 의향 등으로 구성된 봉과물품이다. 『국조보감』은 조선 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왕대별로 편찬한 역사서이며, 세조(世祖)대에 처음 편찬되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조보감』의 봉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조보감』을 봉과할 때에는 책을 보자기에 싸서 보자기 끝에 달려 있는 끈을 이용해 둘러 묶은 후 천궁(川芎)가루를 채워 넣은 의향(衣香)과 함께 흑칠함에 담고, 그 함을 다시 한 번 더 보자기로 싸서 마무리하였다.